

한국복지패널의 학문적 기여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Academic Research*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패널 조사의 10주년을 맞아 이 글에서는 그 동안 한국복지패널이 한국 사회과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복지패널을 연구자료로 활용한 연구성과물은 석박사 논문 137편과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373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색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서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복지패널의 학문적 기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단자료가 축적될수록 패널데이터의 연구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복지패널이 한국 사회과학 분야에 미치는 학문적 기여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1. 들어가며

2006년에 첫 조사에 들어간 한국복지패널이 2015년에 제 10차 조사를 마쳤으니 구축된 종단 자료가 이제 10년을 채우게 됐다. 패널 데이터의 '생애주기'로 보면 보통 3년 정도까지를 영유아기, 4년에서 6년 정도까지를 아동기, 7년에서 10년까지를 청소년기로 파악한다면 이제 한국복지패널은 본격적으로 성년기로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패널 데이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용도를 꼽으라면 학문적인 활용이 될 것이다. 패널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그 자료가 얼마나 활발히 활용돼서 관련 학문분야

의 발전에 기여했는가로 판가름 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이 지난 10년 동안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짐작에는 아마도 대부분 수긍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과연 그 기여가 어떤 형식이었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아직 없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학문적 기여를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석자료로 활용된 정도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이 석박사 학위논문의 분석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패널 데이터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척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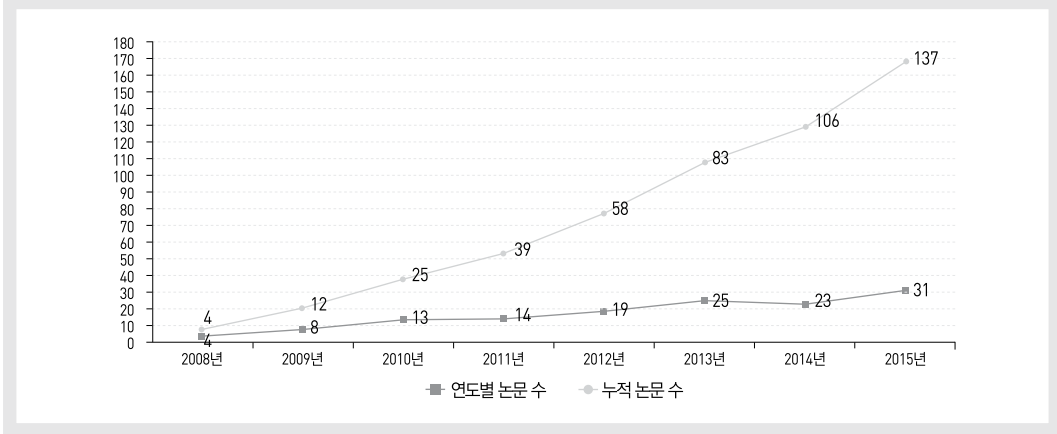
박사 학위논문에서의 활용이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기여라고 본다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패널 데이터가 쓰인 정도는 교수와 전문연구원 등의 기성 학문세대의 연구에 미친 영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의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인 RISS 사이트를 활용했다¹⁾. 검색어로는 ‘복지패널’과 ‘Korea Welfare Panel’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1차 검색을 한 후에는 각 학위논문의 초록과 필요한 경우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한 논문인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총 137편의 석박사 학위 논문이 최종적으로 검색됐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는 DBPIA²⁾, KISS(한국학술정보원)³⁾, 학지사 뉴논문⁴⁾, 그리고 NDSL 데이터베이스⁵⁾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였다. 학술지의 경우도 검색어로는 ‘복지패널’과 ‘Korea Welfare Panel’을 사용하였다. 1차 검색후에는 각 논문의 초록과 필요한 경우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한 논문인지를 검증하였다. 이 때 전문학술지가 아닌 ‘보고서’ 등은 검색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총 373편의 전문학술지 논문이 최종적으로 검색됐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방법으로 검색한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복지패널이 연구자료로 활용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학문적 기여도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림 1. 한국복지패널을 연구자료로 활용한 국내 대학 석박사 학위논문 편수: 2008~2015년(8월)



1)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는 전국 217개 대학의 약 120만 건의 국내 학위논문(원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www.riss.kr).

2) DBPIA(Data 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y)(www.dbpia.co.kr)

3) KJ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kstudy.com)

4) www.newnonmun.com

5)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www.ndsl.kr)

2. 한국복지패널의 연구자료 활용 실태 분석

1) 석박사 학위논문에서의 활용 분석

[그림 1]은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고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국내 대학에서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편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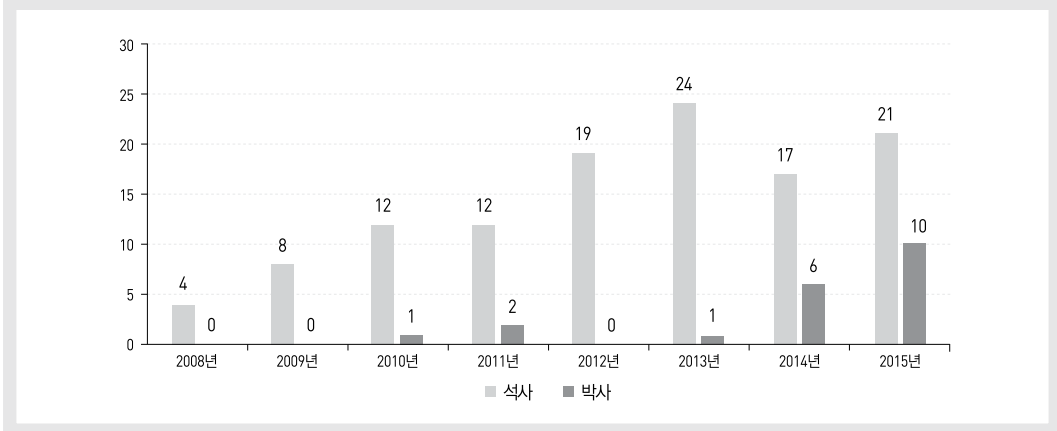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2006년부터 시작 됐지만, 데이터가 공개되고 첫 번째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가 열린 시점이 2008년인 것을 고려하면 학위논문의 경우도 200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2008년에 4편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발표된 후 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매년 약 25편 정도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5년에는 반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이미 31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어 최

근에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석박사 학위논문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을 보면 누적 석박사 학위논문 편수도 계속 증가해 2015년에는 137편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이후 매년 25편 정도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석박사 학위논문 활용 정도가 증가한 이유는 복지패널의 연차 수가 5년을 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종단연구가 수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복지패널이 학계에 널리 알려져 본격적으로 학문후속세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도 최근 증가세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림 2]는 연도별 한국복지패널 활용 학위논문 편수를 석사와 박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학위논문 편수를 비교해보면 석사논문이 117편으로 박사논문 20편의 약 6배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이러한 비율은 석사과정 학생 수와 박사 과정 학생 수를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다.

그림 2. 한국복지패널 활용 학위논문 편수: 석사와 박사, 2008~2015년(8월)



박사논문의 경우는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2013년까지는 그 편수가 매년 1~2개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에는 6편 그리고 반년 정도의 기간만 살펴본 2015년에는 10편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사논문의 경우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최종 학위논문 제출까지 통상 3~4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사학위 논문이 20편대로 증가하는 2012년 정도부터 시작된 연구

들이 최근 들어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데이터의 특성 상 연차 수가 증가할수록 그 활용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014년부터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석박사 학위논문이 제출된 학과 이름을 이용해 분류한 학문분야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1>에 나타난 대

표 1.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석박사 학위논문의 학문 분야: 2008~2015년(8월)

학문분야	논문수	%
사회복지학	77	56.2
보건/의료	21	15.3
행정(정책)학	11	8.0
경영/경제학	9	6.6
아동/가족학	6	4.4
통계학/조사방법	4	2.9
기타	4	2.9
교육학/청소년학	2	1.5
정치학/사회학/언론학	2	1.5
여성학	1	0.7
계	137	100.0

표 2.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석박사 학위논문의 주제 분야: 2008~2015년(8월)

연구 주제	빈도	%
경제/노동시장/빈곤	50	36.5
주거/의료서비스	29	21.2
정신건강/신체건강	23	16.8
아동청소년발달/학교적응	7	5.1
정책/평가	7	5.1
사회적자본	6	4.4
출산/보육	4	2.9
복지인식/태도	4	2.9
통계방법	3	2.2
생활	2	1.5
기타	2	1.5
계	137	100.0

로 학위논문 편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학 분야로 전체의 약 56%에 해당한다. 한국복지패널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패널 데이터가 주로 다루는 영역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활용도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이 보여주는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한국복지패널의 이용이 사회복지학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활용 학문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행정(정책)학, 경영/경제학, 아동/가족학, 교육/청소년학, 여성학, 통계학 등 상당히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복지패널의 학문적 기여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석박사 논문의 주제 분야 분포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경제/노동시장/빈곤 연구 분야의 학위논문이 전체의 약 3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로 나타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특성 중 하나가 근로, 소득, 경제활동 등에 관한 내용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자세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노동시장/빈곤 분야의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측면도 있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 영역은 주거/의료서비스 분야인데 이러한 분석결과도 서비스 정책이나 현황 분석에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석박사 학위논문에 활용된 빈도와 학문분야, 그리고 주제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다. 분석결과를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활용 빈도가 특히 최근에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활용되는 분야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학문분야에서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여도는 양적 측면에서만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질적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학위논문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단기간에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한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용된 연구방법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얼마나 다양한 고급(advanced) 통계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사용된 통계방법이 연구의 질 수준을 모두 대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양적연구에서는 사용된 통계방법의 수준이 전체 연구의 질적 내용을 기증하는 하나의 척도는 될 수 있다.

<표 3>은 한국복지패널을 연구자료로 사용한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의 분포를 보여준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방법은 회귀분석이다. 이분산 종속변수를 활용하는 로짓/프로빗/로지스틱 통계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고 연속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이 또 다른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래밍 평가에서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통제하는 기법인 성향점수매칭 혹은 데이터의 구조 분석에 더 적합한 구조방정식 등의 방법도 상당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한국복지패널의 자

표 3.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 2008~2015년(8월)

연구방법	빈도	%
로지트/프로빗/로지스틱	49	35.8
회귀분석	24	17.5
성향점수매칭	17	12.4
구조방정식(잠재성장모형)	11	8.0
패널분석	9	6.6
기타	8	5.8
t-test/ANOVA/요인분석	6	4.4
구조방정식(매개효과)	6	4.4
시뮬레이션	2	1.5
다중분석(HLM)	2	1.5
생존분석	2	1.5
기술통계	1	0.7
계	1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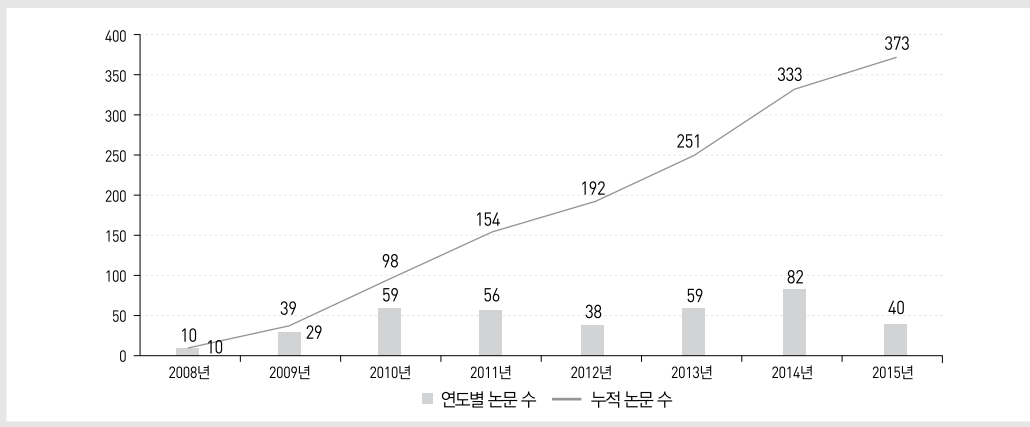
료가 양적연구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고급 최신 통계기법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학문후속세대의 향후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만 하다.

2) 학술지 논문에서의 활용도 분석

2008년 이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학술지 논문의 편수는 총 373개로 나타났다. [그림 3]은 학술지 논문 편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술지 논문의 수는 2008년에 10편으로 시작해

그림 3.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학술지 논문 편수: 2008~2015년(8월)



서 2013년 59편, 그리고 2014년에는 82편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의 경우는 8월 말까지만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까지는 2014년 수준의 수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한 전문학술지의 논문이 8년 사이에 약 400편을 육박한다는 사실을 통해 복지패널 자료가 한국 사회과학계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종단자료의 연 수가 어느 정도 축적된 시점에서 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는 사실은 이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정도가 안정적인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373편의 논문들은 총 121종의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 4>는 그 중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 상위 10개를 보여준다. 한국복지패널 사업의 두 주관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판하고 있는 「보건사

회연구」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의 학술지인 「사회복지연구」가 논문 수에서 각 32개와 19개로 1위와 3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조사를 주관하는 두 기관과 연관된 학자들이 한국복지패널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위를 차지한 학술지는 「한국사회복지학」으로 총 25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한국사회복지학」은 한국의 사회복지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이기도 하다. 상위 10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총 170편으로 파악돼, 전체 논문의 45.5%가 상위 10개의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학문 영역 분포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논문 수를 보인 분야는 사회복지학 분야로 전체 논문의 약 50%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사회과학 분야로 약 12%의 분포를 보인다.

표 4.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상위 10개 학술지

학술지명	논문수
보건사회연구	32
한국사회복지학	25
사회복지연구	19
사회보장연구	17
사회복지정책	14
한국사회정책	14
사회과학연구	12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한국아동복지학	10
한국노년학	9
노인복지연구	7
상위 10위 학술지 게재 논문 합계	170

표 5.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학문 영역

영역	논문수	%
사회복지학	185	49.6
보건/의료	32	8.6
교육학/청소년학	15	4.0
행정(정책)학	30	8.0
사회과학(정치학/사회학/언론학등)	45	12.1
여성학/노년학	12	3.2
아동/가족학	25	6.7
주거/환경학	6	1.6
경영/경제학	5	1.3
통계학/조사방법	6	1.6
기타	12	3.2
계	373	100.0

보건/의료 분야와 행정(정책)학 분야가 약 8%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다음으로 논문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나타난 분포 결과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학문 분야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복지패널의 학문적 기여가 단순히 사회복지학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 사회과학 분야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나가며

연구자료의 학문적 활용 수준으로 살펴본 한국복지패널의 학문적 기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가 활용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학술결과는 총 137편의 국내 석박사 논문과 총 373편의 전문학술지 논문으로 파악됐다. 자료를 활용한 논문의 수는 패널 데이터의 종단적 자료가 6~8년 정도 축적되기 시작한 최근 2~3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학문적 기여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의 다양성과 연구방법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도 한국복지패널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논문의 학문분야와 주제의 분포 그리고 학술지 논문의 학문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 영역이 단순히 사회복지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에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최근 사회과학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통계기법들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는 종단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그 자료는 현재 9년 치까지 축적된 상태이고, 2015년 현재 10년 짜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한국복지패널이 사회과학의 실증연구에 미친 영향은 그 양과 질의 차원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복지패널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거나, 혹은 연구자가 따로 수집한 일회성 소규모 자료에 의존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했다. 일회성 소규모 자료를 활용할 경우 실증연구에서 가

장 중요한 반복검증(replication)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힘든 구조여서 지식의 체계적인 축적도 기대하기 힘들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여러가지 다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동일한 연구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지식의 축적 효과는 한국복지패널의 큰 학문적 기여이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복지패널이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한국 사회과학의 실증연구 분야에서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다. ■